

##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

변지은 · 이훈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 동기와 방향적 목표 중의 하나인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와 동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비교해봄으로써, 이들 동기가 사회적 판단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다른 지를 알아보았다. 실험 1에서는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확성 동기는 점화의 대비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는 점화의 대비효과를 압도하였다. 점화의 대비효과는 점화된 범례를 부호화 단계가 아니라 판단단계에서 비교기준으로 사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 1의 결과는, 정확성 동기는 판단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는 판단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의 유발시점을 부호화 전과 후로 달리하여, 이들 동기들이 점화의 동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실험결과,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전에 유발된 경우에는 점화의 동화효과를 제거하였지만, 부호화 이후에 유발된 경우에는 점화의 동화효과를 제거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는 부호화 전 뿐만 아니라 부호화 후에 유발된 경우에도 점화의 동화효과를 압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확성 동기는 정보의 부호화 단계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는 부호화단계 뿐만 아니라 이후의 판단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들은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와 같은 방향적 목표가 사회적 판단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주제어: 정확성 동기, 방향적 목표,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 점화효과, 동화효과, 대비효과

사회적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해석은 종종 이들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활성화된 특정 지식구조(개념들, 범주, 도식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다양한 사고나 태도는 아무런 의식적인 의도나 자각 없이도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최근에 자주 활성화된 개념들은 활성화되지 않았던 개념들보다 더욱 쉽게 떠오르며 후속적인 처리과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전 맥락이 새로운 정보의 해석에 미치는 효과를 점화(priming)효과라고 부른다. 많은 사회인지

연구들은 사람들이 자각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현재의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 주었다. 이들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특질 형용사를 사전에 점화시키는 경우, 이것이 그 이후의 인상형성이나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Higgins, 1989, 1996; Higgins, Rholes, & Jones, 1977; Srull & Wyer, 1979).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도 우리에게 제공된 객관적 자료 뿐만 아니라 사전에 어떤 맥락에

노출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인상을 형성해야 할 타인에 대한 정보를 받기 전에, 우리 머리 속에서 어떤 범주가 활성화되었느냐가 대인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일상적인 판단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사전에 활성화된 범주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점화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표적 단어를 제시하기 전에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점화 단어가 주어지게 되면,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어를 제시받았을 때보다 피험자들이 표적 단어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함을 증명하였다(Neely, 1977; Meyer & Schvaneveldt, 1971). 또한 점화 자극이 의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짧게 제시될 경우에도 후속적인 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cel, 1983). Bruner(1957)는 점화효과를 범주 접근용이성(category accessibility)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인지각의 기본 가정은 입력되는 새로운 정보를 이미 기억 속에 저장된 범주들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다(Bartlett, 1932; Bruner, 1957). 이때 어떤 사람이 특정 범주에 의해 정보를 분류하도록 준비된 정도가 그 범주의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정도를 말해 주는 것이다.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특정 범주(category)를 사전에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그 범주에 대한 접근용이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정 용어에 사전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활성화된 범주에 의해 자극 인물을 범주화할 가능성이 증가된다. 또한 동일한 점화 자극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된 범주는 다른 표상구조들에 비해 후속적인 처리에 훨씬 더 지배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범주가 새로운 정보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범주가 기억 속에서 접근용이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Higgins, Rholes와 Jones(1977)의 연구는 관련된 특정 용어에 사전에 노출된 피험자들이 특정 범주를 활성화시키거나 점화시켜 후속 되는 자극인물에 대한 정보의 부호화에 그 범주를 사용함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표적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없는 긍정적인거나 부정적인 특정 범주의 활성화는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점화의 동화효과 뿐만 아니라 대비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점

화의 대비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활성화된 구성개념에 대해 대비되는 판단을 보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판단자들이 활성화된 정보의 영향에 의한 잠재적인 편파를 의식하는 경우이다. 점화와 자극맥락 사이의 연결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도록 실험을 구성하는 경우에 피험자들은 점화된 특질이 긍정적이면 긍정적 방향으로 자극 대상의 행동을 평가하고 점화된 특질이 부정적이면 부정적 방향으로 자극대상을 평가하는 동화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피험자들이 점화과제에서 활성화된 특질의 영향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비효과를 보였다. 즉, 점화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고 점화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였다(Lombardi, Higgins, & Bargh, 1987; Martin, 1986; Strack, Schwarz, Bless, Kubler, & Wanke, 1993). 이는 지각자들이 “활성화된 특질이 판단에 미칠 영향”을 의식함으로써 점화된 정보를 인상형성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대표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어, 그들의 판단을 잠재적인 영향의 반대 방향으로 교정하게 하는 교정 대비효과(correction contrast effects)에 의한 것이다(Wegener & Petty, 1995, 1997; Wilson & Brekke, 1994). 활성화된 구성개념이 대비효과를 가져오는 두 번째 경우로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접근용이한 지식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접근용이한 정보는 애매한 표적 인물에 대한 인상형성을 할 때 부호화 단계에서 해석의 틀로 사용되거나 판단단계에서 비교 기준으로 사용되어 인상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전에 활성화된 정보가 해석의 틀로 사용되는 경우에 판단은 점화된 정보와 동화되며(Higgins, Rholes, & Jones, 1977), 비교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Herr, 1986; Herr, Sherman, & Fazio, 1983).

범주의 활성화는 정보처리 초기의 부호화와 저장과정 뿐만 아니라 차후의 정보 회상과 판단, 정보의 구성과 재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Bartlett, 1932; Neisser, 1967). 사전 맥락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점화의 효과는 대부분의 경우 의식없이 자동적 과정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각과 사고과정 뿐만 아니라 행동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과정에 미치는 점화의 자동적 처리 과정은 개인이 가진 동기나 목표에 의해 일어나는 의식적인 처리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복잡한 인간의 판단과정을 단순히 사전에 활성화된 맥락의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인간의 사회적 추론은 매 순간 개인이 가진 동기적 목표에 의해 채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이 가진 동기나 목적이 지각, 태도, 판단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지지되어 왔다(변지은·이훈구, 1994; 전우영, 1998; Chaiken, Liberman, & Eagly, 1989; Harkness, Debono, & Borgida, 1985; Kruglanski & Freund 1983; Tetlock & Boettger, 1989).

대인지각에서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추론 현상은 두 개의 주요 동기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Kunda(1990)는 인간의 다양한 동기를 크게 정확한 판단을 하려는 동기와 원하는 특성의 결론에 도달하려는 방향적 목표(directional goals)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들 두 개의 동기는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정확성 동기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을 위해 추론의 과정에서 정보를 더욱 철저히 검색하고 처리하게 하는 반면에, 방향적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추론의 과정에서 기억과 정보검색을 왜곡시킬 수 있다(Pyszczynski & Greenberg, 1987). 또한 정확성 동기는 판단의 부호화과정에 영향을 미쳐 주어진 정보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정교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정관념이나 사전에 활성화된 범주가 아닌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Ford & Kruglanski, 1995; Thompson, Roman, Moskowitz, Chaiken, & Bargh, 1994; Neuberg, 1989; Neuberg & Fiske, 1987; Tetlock, 1983, 1992). 반면에, 방향적 목표는 주어진 정보를 개인 자신의 목표를 타당화 시키는데 사용하거나 목표에 맞게 왜곡시키고 기억함으로써 최종의 판단을 자신이 원하는 결론으로 이끌게 한다(Kruglanski, 1989a; Kruglanski & Ajzen, 1983; Kunda, 1990). 예를 들면, 자신의 수행 성적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은 검사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정보보다 타당성을 저하시키는 정보를 더 선호하였다(Frey & Stahlberg, 1986). 또한 학문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학문적 실패보다 성공을 더 잘 회

상하였고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하였다. 또한 방향적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기억을 편파시켰다. Sherman과 Kunda(1989)는 카페인 섭취가 건강에 나쁘다고 들은 피험자들이 카페인이 건강에 좋다고 들은 피험자들보다 최근에 카페인을 먹은 빈도를 덜 보고하였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믿으려는 목표 때문에 과거 행동에 대한 기억검색을 편파시킴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방향적 목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접근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신념과 규칙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다른 신념과 다른 규칙들이 방향적 목표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Kunda & Nisbett, 1986).

범주의 자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동기는 사전에 점화된 특질을 판단에 사용하게 하는 점화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와 점화효과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정확성 동기나 의사소통 목표와 같은 방향적 목표(directional goals)가 점화의 동화효과를 감소시킴을 발견함으로써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해 주었다(Ford & Kruglanski, 1995; Kruglanski, 1989a; Sedikides, 1990; Thompson et al., 1994). 그러나 이들 두 유형의 동기가 점화효과를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정확성 동기는 주어진 정보를 주의 깊게 처리하여 점화된 특질 이외의 다른 대안들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점화효과를 제거하는 반면에, 방향적 목표는 자신들의 동기적 목표에 맞게끔 정보에 대한 기억 등을 왜곡시키고 정보를 재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기적 목표에 맞는 판단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향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점화된 특질을 판단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전 점화의 효과는 방향적 목표에 의해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판단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 특히 정확성 동기를 유발시키는 여러 상황에서 인지적 판단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들을 해 왔지만 특성이 다른 동기들이 인지적 판단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본 논문의 연구들은

점화와 같은 자동적인 사회적 추론과정이 다른 특성을 가진 동기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동기에 따라 그 영향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정확성 동기와 방향적 목표 중의 하나인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유발되는 상황을 조작하여 이들 동기가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볼 것이다. 사람들은 낯선 타인에 대해 인상을 형성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전에, 이미 긍정적인 인상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앞으로의 상호작용을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형성을 한다(Vonk, 1998). 특히 데이트나 협동적인 일을 함께 해야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좋아하도록 강하게 동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scheid, Graziano, Monson, & Dermer, 1976; Darley & Berscheid, 1967).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나 협동 과제가 주어지는 결과의존 상황에서 유발될 수 있는 다른 동기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표적인물을 단순한 상호작용이 예견되는 인물로 조작하여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를 유발시켰다.

동기들이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확성 동기와 방향적 목표 모두 점화의 동화효과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성 동기는 표적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와 다양한 해석을 통해 표적인물에 대한 판단에 접근용이한 구성개념을 사용하는 동화효과를 감소시켜 주었고(Ford & Kruglanski, 1995; Thompson et al., 1994),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는 자신의 동기적 목표에 맞는 인상형성을 함으로써 점화된 특질을 판단에 사용하지 않았다(Sedikides, 1990). 그런데, 접근용이한 지식이 비교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표적인물의 대한 정보를 표상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단계에서 비교기준으로 사용되게 된다(Stapel, Koomen, & van der Pligt, 1996; Stapel, Koomen & van der Pligt, 1997). 이와 같이 점화의 비교대비효과는 인상형성의 부호화단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판단단계에서 점화된 범례가 비교기준으로 사용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정확성 동기는 점화의 대비효과를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방향적 목표는 사람

들을 자신의 목표에 맞는 적절한 판단결과를 얻도록 동기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대비효과가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 판단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점화된 범례를 판단단계에서 비교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동기적 목적에 맞도록 정보에 대한 검색과 기억, 추론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화의 대비효과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은 정확성 동기와 방향적 목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여겨진다.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두 개의 동기가 판단 결과에만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정에도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이러한 예측에 대한 검증은 두 개의 동기 유형이 사회적 추론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실험 1에서는 점화의 대비효과에 미치는 동기들의 영향을 살펴볼 것인데, 점화의 대비효과는 점화된 인물 범례가 판단단계에서 비교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동기가 대비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면 판단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Ford와 Kruglanski(1995) 그리고 Thompson 등(1994)은 정확성 동기가 점화의 동화효과를 감소시킴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 정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도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예측과는 달리,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정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증명하였다(Stapel, Koomen & Zeelenberg, 1998). Stapel, Koomen과 van der Pligt(1997)는 특질 개념이나 비인물 범례가 점화되면 인상형성의 해석단계에 영향을 미쳐 동화효과가 일어나는 반면에 극단적인 인물 범례의 점화는 판단과정에서 비교기준으로 사용됨으로써 대비효과가 일어남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점화된 범주정보가 해석의 틀로 사용되면, 애매한 자극을 동화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며, 점화된 범주정보가 충분히 극단적이어서 비교기준으로 판단과정에서 사용되면 점화된 범례와 대비되는 방향으로 표적인물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즉, 특질 개념이 점화된 후의 동화효과는 해석과정의 결과지만, 극단적인 인물 사례

점화 후의 대비효과는 판단과정의 결과이다.

Stapel, Koomen과 Zeelenberg(1998)은 정확성 동기가 동화효과와 대비효과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들은 점화의 동화효과 혹은 대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조작하고 지시문을 통해 피험자들에게 정확성 동기를 유발시켰다. 그 결과 정확성 동기가 점화의 동화효과를 제거하였으나 대비효과는 제거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방향적 목표가 대비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성 동기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방향적 목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지지해 주는 방향으로 기억 검색과 정보의 조합을 왜곡시키게 한다. 따라서 방향적 목표는 정보를 처리하는 부호화 단계 뿐만 아니라 부호화 이후에도 개인 자신의 동기적 목표에 맞게끔 정보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키고 정보를 재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기적 목표에 맞는 판단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향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판단단계에서 점화된 특질을 비교기준으로 사용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전 점화의 대비효과는 방향적 목표에 의해 감소되거나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방향적 목표가 점화의 대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사회적 판단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비교해 볼 것이다.

실험 1에서 판단단계에서 일어나는 대비효과에 특성이 다른 두 동기들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봄으로써 두 동기가 판단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본다면, 실험 2에서는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를 판단과정의 다른 단계(부호화 전과 부호화 후)에 유발시켜, 동기들이 유발된 시점에 따라 점화의 동화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두 동기가 판단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다름을 알아볼 것이다. Tetlock(1992)은 정보의 부호화 전에 설명의 책임성(accountability)이 유발된 피험자들은 목표 자극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표적자극에 대한 해석을 함으로써 인지적 편파를 감소시켰지만 제시된 정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부호화

후)에 동기를 유발시킨 경우에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고하였다(Tetlock, 1992; Tetlock & Kim, 198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이후에 유발되는 경우에는 점화된 구성개념의 동화효과를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는 앞에서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즉, 정확성 동기로 인한 깊은 처리는 정보를 부호화하는 초기 판단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나중의 판단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Thompson 등(1994)은 정확성 동기가 표적정보를 부호화하기 전뿐 아니라 부호화한 후에 유발되어도 점화의 동화효과를 제거해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이후에 유발되어도 초기의 인상을 재부호화시켜 점화효과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Sedikides(1990)는 의사소통 목표를 시점에 달리하여(정보의 부호화 전과 후) 도입하였고, 실험 결과 의사소통 목표가 사전에 점화된 특질 개념의 접근용이성보다 우세함을 밝혀내었다. 즉, 표적인물에 관한 정보를 읽은 후에 의사소통 지시문을 제시한 경우에도 의사소통 목표의 효과가 점화효과보다 우세하였다. 이는 초기 부호화가 의사소통 목표를 만족시키는 데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판단을 하기 전에 의사소통 목표에 따라 정보를 왜곡시킴으로써 재부호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가 정보를 부호화한 후에 주어지더라도 각각자가 자신의 사전 해석을 적극적으로 재부호화하도록 동기화 된다면, 점화의 동화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점화효과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은 동기가 유발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호화단계 이후에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 각각자들이 마지막 판단을 하기 전에 재부호화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동화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예측에 따라 실험 2에서는 정확성 동기와 방향적 목표 중의 하나인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를 표적인물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기 전(부호화 전)과 제시한 후(부호화 후)에 유발시켜, 동기가 유발된 시점에 따라 두 개의 동기가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판단과정에서 부호화 이후의 단계에도 이들 동기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의 동기가 사회적 판단과정의 어떤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 실험 1: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에 미치는 영향

실험 1에서는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봄으로써 두 동기가 판단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다르다는 예측을 검증해 보았다. 정확성 동기와 방향적 목표 중의 하나인 긍정적인 인상형성의 동기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으며, 특히 판단과정에서 두 동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점화의 대비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험 1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점화자극과의 미적으로 관련된 특질차원에서,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즉, 정확성 동기가 유발된 조건에서는 점화의 대비효과가 제거되지 않고,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조건과 마찬가지로 표적인물에 대해 점화된 인물범례와 대비되는 평가를 할 것이다. 반면에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유발된 조건에서는 점화자극과 상관없이 표적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점화의 대비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은 점화자극이나 기술문과 의미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특질차원에 대해서도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증명되었듯이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문과 의미적으로 관련없는 특질 차원에서, 점화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의 영향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유발된 조건에서는 정확성 동기가 동기유발이 없는 조건보다 표적인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연구방법

##### 피험자

연세대학교에서 개설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128명(남자 72명, 여자 56명)이 실험에 참여하

였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심리학 교양과목의 필수 과정으로 실험에 참여하였고 실험 참가 점수로 1점이 제공되었다. 피험자들은 6개의 조건에 각각 20~24명씩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이들 중에서 실험의 목적을 눈치챈 2명을 제외한 126명(남자 72명, 여자 5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실험자극

##### 가. 점화자극

98명의 대학생들에게 30명의 인물 각각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9점 척도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30명의 인물이름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이름들(Herr, 1986; Stapel, Koomen, & van der Pligt, 1997; Wyer & Srull, 1989)과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자가 새로이 추가한 이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인물들은 실존의 인물(예: 전두환)이거나 역사적 인물(예: 이완용), 동화 속이나 상상 속의 인물(예: 산타클로스)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은 30명의 인물들 각각에 대해 '전혀 적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1점에 '매우 적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9점에 평가하였다. 이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명의 인물이름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5명의 인물이름을 선정하여 점화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적대적인 것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인물이름은 히틀러(M=7.66), 김정일(M=7.54), 이근안(M=7.14), 전두환(M=6.92), 이완용(M=6.81)으로 부정적 범례 점화자극으로 사용되었다. 적대적 차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인물이름은 테레사 수녀(M=1.82), 산타클로스(M=1.85), 슈바이처(M=2.19), 간디(M=2.41), 피터팬(M=2.68)으로 긍정적 범례 점화자극으로 사용되었다. 이들 범례 점화자극들은 중성적인 물건이름(의자, 종이, 휴지, 거울, 양말)들과 함께 제시되었다.

##### 나. 인상형성을 위한 기술문

애매한 기술문은 Srull과 Wyer(1979)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날드에 대한 기술문을 우리 나라 대학생에게 맞는 상황으로 약간의 수정을 하여 제시하였다. 도날드라는 이름은 영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기술문의 내용은 '적대적인(hostile)' 특질차원에서 애매한 내용들이었다. 영수에 관한 기술문이 '적대적인' 특질 차원 상에서 애매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9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수에 대한 기술문을 ‘적대적인’의 특질척도 상에 평가하게 하였다. ‘전혀 적대적이지 않다’는 1점에 ‘매우 적대적이다’는 9점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평균은 5.14이었고 표준편차는 1.64로 ‘적대적인’ 특질차원 상에서 애매한 기술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수에 대한 애매한 기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옛 동아리 친구인 영수를 우연히 만나 그의 집을 방문하였다. 영수의 집에 도착하고 조금 후에 한 영업사원이 찾아왔으나 영수는 그 영업사원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영수는 나에게 말하기를 집주인이 집을 다시 도배해 줄 때까지 방값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얼마간 담소를 나누었고, 점심을 먹고는 시외로 드라이브를 했다. 영수의 차는 그 날 아침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내 차를 이용했다. 우리는 한 시간 가량 카페에서 머물고 난 후 전자상가에 들렀는데 영수는 컴퓨터 부품 몇 가지를 샀다.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찾고 있는데 그가 점원에게 환불해 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가 찾는 것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 상점에서 나와서 몇 블록 떨어진 다른 상점으로 갔다. 그때 적십자 요원 두 명이 헌혈을 하도록 요청했으나 영수는 거절하였다. 상가에 도달하고 보니 상가는 문을 닫았고 날도 어두워져서, 영수를 바라다주려는 가능하면 곧 다시 만나자고 하고는 헤어졌다.

### 실험절차

‘문장이해’에 관한 실험으로 피험자들을 모집하였다. 피험자들이 실험실에 들어오면, 각자 컴퓨터 앞에 앉게 한 후에 실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다. 이때 피험자들에게 그들이 다른 연구자들이 진행하는 다른 주제에 관한 두 개의 실험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먼저 하게 될 실험은 시각탐색 실험으로 다른 연구자의 실험이지만 매우 짧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실험을 하기 전에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시각탐색 실험이 끝나면, 문장이해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대학생에 대한 간단한 기술문을 읽고 몇 개의 척도상에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시각탐색 실험과 문장이해 실험은 모두 컴퓨터로 진행이 되었다.

먼저 시각탐색 실험은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빨리 나

타났다 사라지는 자극을 탐색해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려주었다. 화면에 하나의 낱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 낱말들을 읽고 나서 그 위치에 따라 왼편에 단어가 나타나면 왼쪽 키를, 오른쪽에 나타나면 오른쪽 키를 누르도록 하였다. 각각의 단어들이 나타나는 위치는 왼편과 오른편 화면의 일정하지 않은 장소에 나타나도록 하였다. 컴퓨터 화면에 단어가 제시되는 시간은 200ms로 피험자들이 가까스로 나타난 단어를 읽을 만한 시간이었다. 따라서 범례자극을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한 단어가 사라지고 다음 단어가 나타나기까지의 간격은 1000ms로 충분한 반응시간을 주었다. 시각탐색 실험으로 위장된 점화과제에서는 10개의 단어들이 각각 10번씩 반복되어 제시되었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모두 100번의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 때에 10개의 낱말 중 5개는 사람 이름의 범례자극이었고 나머지 5개는 일반 명사로 중립적인 자극이었다. 사람 이름과 일반 명사의 제시순서는 서로 섞여서 제시되었다. 피험자들의 반은 적대적인 인물의 이름을 보았고(부정적 범례 점화조건), 나머지 반은 우호적인 인물의 이름을 보았다(긍정적 범례 점화조건).

모든 피험자들이 시각탐색 실험을 다 마치고 나면 첫 번째 실험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고, 두 번째 실험으로 본 연구자의 실험인 ‘문장이해’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문장이해에 관한 실험을 가장한 인상형성 과제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이때 지시문을 통해 정확성 동기 혹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를 갖도록 동기 유발을 조작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정확성 동기,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 및 동기유발이 없는 조건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정확성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이 실험은 언어 심리학 실험으로 문장 이해에 관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인 영수라는 사람에 대한 짧은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영수에 관한 글을 다 읽고 나시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다음 화면에 나타난 영수와 관련된 몇 개의 질문들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왜 영수에 대해 그

러한 판단을 하였고 판단에 어떤 정보를 이용하였는지를 함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과 실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주십시오. 실험이 시작됩니다.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이 실험은 언어 심리학 실험으로 문장 이해에 관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인 영수라는 사람에 대한 짧은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영수에 관한 글을 다 읽고 나시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다음 화면에 나타난 영수와 관련된 몇 개의 질문들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영수씨는 이 실험의 조교로 지금 옆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고 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 한 분씩 옆방으로 가서서 영수씨와 실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설명을 다 읽으셨으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주십시오. 실험이 시작됩니다.

동기유발이 없는 통제조건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이 실험은 언어 심리학 실험으로 문장 이해에 관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인 영수라는 사람에 대한 짧은 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영수에 관한 글을 다 읽고 나시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다음 화면에 나타난 영수와 관련된 몇 개의 질문들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스페이스 바를 눌러 주십시오. 실험이 시작됩니다.

피험자들은 기술문을 읽은 후 컴퓨터를 통해 표적인물에 대한 인상을 7점 척도 상에 평가하였다. 피험자들이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나면, 실험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 앞으로 참여할 다른 실험 참가자들에게 비밀을 보장해 줄 것을 부탁한 뒤 실험을 모두 끝마쳤다.

#### 종속측정

피험자들은 표적인물에 대한 인상을 모두 8개의 7점 척도에 평가하였다. 4개의 척도는 의미적으로 점화된 인물범례와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문과 관련된 것으로

‘적대성’이 높거나 낮음을 의미하는 특질차원들이었고(적대적인, 우호적인, 친절함, 몰인정한), 다른 4개의 척도는 의미적으로 ‘적대성’과 관련 없는 특질차원들이었다(지적인, 고집 센, 신뢰로운). ‘적대성’이 높은 특질들과 낮은 특질들간에 상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특질들은 없었다. 피험자들에게 이들 척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 ‘매우 그렇다’는 7점에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들 척도의 제시순서는 순서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상쇄균형화 되었다.

#### 결과 및 논의

실험1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점화된 범례와 의미적으로 관련된 4개의 특질차원과 의미적으로 관련 없는 3개의 특질 차원에 대해 7점 척도로 평가한 피험자들의 평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점화된 범례와 의미적으로 관련된 4개의 특질 척도(적대적, 우호적, 친절함, 몰인정한)를 하나의 평정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우호적’과 ‘친절함’의 특질 척도를 역부호화한 후, 이들 4개의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우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Cronbach's  $\alpha = .86$ ). 따라서, 분석에서는 이들 4개의 특질척도를 하나로 합한 점수를 ‘적대적인’ 특질차원에 대한 종속측정치로 사용하였다.

#### 가. 조작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지시문을 통해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를 조작하였다. 정확성 동기가 의도대로 조작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문을 읽는 시간과 기술문에 대한 회상검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들이 기술문을 읽는 데 보낸 시간은 피험자들이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얼마나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Bargh & Thein, 1985; Chaiken, 1980), 정확성 동기가 유발된 피험자들은 기술문에 더 많은 주의와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기술문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Fiske, 1980; Neuberg & Fiske, 1987; Ruscher & Fiske, 1990; Vonk, 1998). 또한 정확성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기술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기술문에 대한 회상 정도도 높을 것이다. 분석 결과, 동기유발이 없는 통제조건(평균 50.26, 표준편



차 16.12)이나 긍정적 인상형성 조건(평균 52.61, 표준편차 15.60)에서보다 정확성 동기조건(평균 62.95, 표준편차 8.8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술문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F(2, 124) = 6.68, p < .01$ . 또한 회상한 기술문의 수도 동기유발이 없는 통제조건(평균 3.89, 표준편차 1.45)이나 긍정적 인상형성 조건(평균 3.61, 표준편차 1.88)에서보다 정확성 동기조건(평균 4.68, 표준편차 2.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124) = 3.70, p < .05$ . 이와 같은 결과는 정확성 동기 지시문이 제시된 경우에 사람들이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더 자세히 읽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실험자가 의도한 대로 정확성 동기가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의도대로 조작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적인물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을 측정하였다. 표적인물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되면 1에 '매우 좋다'고 생각되면 7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동기유형별로 비교해 본 결과, 동기유발이 없는 통제조건(평균 3.83, 표준편차 1.06)이나 정확성 동기조건(평균 3.85, 표준편차 1.12)에서보다 긍정적 인상형성 조건(평균 4.39, 표준편차 1.12)에서 점화유형과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적인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124) = 3.53, p < .05$ .

#### 나. 시각탐색 실험에서 점화된 범례의 대비효과 검증

본 실험은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으로, 가설검증을 하기 전에 점화된 범례가 대비효과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시각탐색 실험으로 인물 범례 자극을 점화시킨 것이 판단에 대비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조건에서 긍정적인 범례 점화 조건과 부정적인 범례 점화 조건 간에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점화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차원인 '적대적인' 특질차원에 대한 분석 결과, 긍정적인 범례 점화조건(평균 5.33, 표준편차 .61)과 부정적인 범례 점화조건(평균 4.02, 표준편차 .96)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 44)=124.81,$

$p < .001$ . 즉, 긍정적인 범례 점화조건에서는 표적인물을 더 적대적으로 판단한 반면, 부정적인 범례 점화조건에서는 표적인물을 덜 적대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점화자극으로 사용된 인물 범례 자극이 판단에 점화의 대비효과를 가져왔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화자극이나 기술문과 의미적으로 관련 없는 차원들의 평정에서는 긍정적인 범례 점화조건과 부정적인 범례 점화조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점화의 대비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연구되어진 점화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Higgins 등, 1977; Stapel 등, 1998)

#### 다. 가설검증

##### 1) 점화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있는 특질차원에서, 동기유형에 따른 점화의 대비효과 발생여부

점화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차원인 '적대적인' 특질 차원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정을 분석하였다.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 동기유발이 없는 조건에서 범례자극의 유형에 따라 피험자들이 표적인물에 대해 한 평정의 평균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동기의 유형과 점화된 범례의 유형이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동기유형: 정확성동기,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 동기유발 없음) × 2(점화유형: 긍정/부정)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변인 모두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적대적인' 특질차원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동기유형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120)=9.59, p < .001$ . 어떤 동기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기유형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직교 대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인상형성의 동기가 유발되는 조건이 정확성 동기가 유발되는 조건과 동기유발이 없는 통제조건보다 표적인물을 덜 적대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점화유형의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1, 120)=31.97, p < .001$ , 동기유형과 점화유형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20)=5.34, p < .01$ . 그러나 변량분석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만으로는 동기유형에 따라 점화의 대비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할 수 없다. 점화의 대비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긍정적 범례조건과 부정적 범례

조건 간의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동기가 유발된 조건과 동기가 유발되지 않았던 조건에서의 평정도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동기 유형별로 긍정적 범례조건과 부정적 범례조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사전대비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고 또한 각 동기유발조건에서의 평정을 동기가 유발되지 않았던 조건의 평정과 비교해 보았다.

표 1. 동기유형과 점화유형에 따른 점화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있는 특질차원('적대적인')에 대한 평정의 평균치

점화유형	동기의 유형		
	정확성 동기	긍정인상동기	동기유발 없음
긍정적 범례	5.25(.63) <sub>a</sub>	3.98(1.23) <sub>b</sub>	5.33(.61) <sub>a</sub>
부정적 범례	3.98(1.02) <sub>b</sub>	3.81(.83) <sub>b</sub>	4.02(.96) <sub>b</sub>

\*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으로 평가한 것.  
 \*( )은 표준편차임.  
 \* 다른 첨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먼저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증해 보기 위해 각 동기별로 점화유형 조건에서의 평정을 비교하여 대비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정확성 동기가 유발된 조건에서는 긍정적인 범례점화와 부정적인 범례점화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 120)=117.30, p < .001$ . 즉, 부정적인 범례가 점화된 경우에는 표적인물을 덜 적대적인 것으로 평가한 반면, 긍정적인 범례가 점화된 경우에는 표적인물을 더 적대적으로 평가하여 점화의 대비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는 긍정적인 범례 점화조건과 부정적인 범례점화 조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에서는 범례 점화자극에 따른 점화의 대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전대비 분석 결과는 정확성 동기가 유발된 경우에는 점화의 대비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긍정적인 인상형성의 동기는 점화의 대비효과를 제거했음을 보여주었다.

정확성 동기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유발된 조건과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조건간에 표적인물에 대한 평

정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동기 유발조건을 동기유발이 없었던 조건과 비교해 보았다. 사전대비 분석 결과, 정확성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에 긍정적인 범례 점화조건과 부정적인 범례 점화조건에서 동기유발이 없었던 조건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유발된 집단은, 긍정적인 범례가 점화된 조건에서 동기유발이 없었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적인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F(1, 120)=132.55, p < .001$ , 부정적인 범례가 점화된 조건에서 동기유발이 없었던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정확성 동기가 유발된 조건에서는 동기유발이 없었던 조건과 판단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유발된 조건에서는 부정적인 범례정보가 점화된 경우뿐만 아니라 된 긍정적인 범례 정보가 점화된 경우에도 표적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점화의 대비효과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분석과 사전 대비 분석 결과는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유발된 조건에서 피험자들이 점화유형에 상관없이 표적인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대비효과를 제거하였고 정확성 동기는 대비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 2) 기술문과 의미적으로 관련없는 특질차원에서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의 영향

점화된 범례나 표적인물의 기술문과 의미적으로 관련 없는 특질차원인 '지적인', '고집 센', '신뢰로운' 특질차원에 대해서도 표적인물에 대해 7점 척도 상에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사전대비분석 결과, 3개의 특질차원을 각기 분석한 결과 모두 어떤 동기조건에서도 점화의 대비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점화된 맥락이 그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위해서는 적용가능성(applicability)이 있어야 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표 2와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적인' 특질차원과 '신뢰로운' 특질 차원에서는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 유발조건이 다른 동기조건에 비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점화된 범례나 표적인물의 기술문과

표 2. 동기의 유형과 점화유형에 따른 '지적인' 특질차원에 대한 평정의 평균치

점화유형	동기의 유형		
	정확성 동기	긍정인상동기	동기유발없음
긍정적 범례	4.05( .71)	4.40( .75)	3.73( .86)
부정적 범례	3.76( .77)	4.24( .77)	3.48( .85)

\*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 )은 표준편차임.

표 3. 동기의 유형과 점화유형에 따른 '신뢰로운' 특질차원에 대한 평정의 평균치

점화유형	동기의 유형		
	정확성 동기	긍정인상동기	동기유발없음
긍정적 범례	3.63( .76)	3.90(1.17)	3.68( .99)
부정적 범례	3.86( .79)	4.05(1.40)	3.38(1.06)

\*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  
\*( )은 표준편차임.

관련 없는 이들 3개의 특질들에 대해 3(동기유형: 정확성 동기,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 동기유발 없음) × 2(점화유형: 긍정/부정)의 변량분석을 한 결과, '지적인' 특질차원과 '신뢰로운' 특질차원에서 동기유형의 주효과가 있었다,  $F(2, 120)=8.33, p < .001$ ;  $F(2, 120) = 3.49, p < .05$ . 동기유형의 주효과에 따라 어떤 동기조건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적교대비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적인'과 '신뢰로운' 특질 차원 모두에서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유발된 조건의 피험자들이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조건의 피험자들보다 표적인물을 더 지적이고, 더 신뢰로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점화된 범례나 기술문과 의미적으로 관련 없는 차원에 대해, 점화된 범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의 영향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적인물의 기술문과 관련없는 3개의 차원들 중에서 '지적인' 차원과 '신뢰로운' 차원에서만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의 영향이 나타난 것은 표적인물인 영수를 실험의 조교로 소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적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주어진 기술문 이외에도 실험자가 제시한 지시

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실험 2: 동기유발시점에 따라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의 동화효과에 미치는 영향

실험 2에서는 부호화 전과 부호화 후로 동기유발 시점을 달리하여 이들 동기가 점화의 동화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인지적 추론의 단계들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전의 연구들은 정확성 동기가 표적인물에 대한 정보를 읽기 전에 유발되는 경우에는 점화의 동화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함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정확성 동기가 표적인물에 대한 정보를 읽고 난 뒤인 부호화 후에 유발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Tetlock(1992)과 Thompson 등(1994)의 연구는 모두 동기가 유발되는 시점에 따라 정확성 동기가 판단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지만 두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Tetlock(1992)의 실험에서는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전에 유발된 경우에만 편파를 제거한 반면에, Thompson 등(1994)의 연구에서는 부호화 이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유발된 정확성 동기도 점화의 동화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ompson 등(1994)은 정보를 제시한 후에 정확성 동기가 유발되더라도 초기의 점화와 일치하는 인상을 다시 처리하여 재부호화시킴으로써 점화의 동화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정확성 동기가 점화효과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여부는 부호화단계가 중요하지만 만일 정확성 동기가 판단 단계에서 재부호화를 가능하게 한다면, 부호화 이후에 유발된 정확성 동기도 점화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성 동기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정확성 동기가 판단단계에서 일어나는 점화의 대비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실험 1의 결과와 Tetlock(1992)의 연구를 근거로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이후에 유발되는 경우에는 점화의 동화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험 2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정확성 동기가 부호

화단계 전에 유발되는 경우에는 자극을 주의깊게 처리하고 광범위한 해석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점화효과를 제거할 수 있으나 부호화 후에 유발된 경우에는 점화의 동화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인상형성의 목표는 특정의 결론을 얻고자 하는 방향적 목표로 부호화 이후에 유발되어도 자신의 목표에 따라 정보에 대한 검색을 왜곡시킴으로써 동화효과를 제거하고 원하는 결론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실험 1에서 검증되었듯이 점화자극이나 기술문과 의미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특질차원에서는 점화된 특질의 적용가능성이 낮아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의 영향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연구방법

##### 피험자

연세대학교에서 개설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215명(남자 108, 여자 107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실험 참가 점수로 1점이 제공되었다. 피험자들은 10개의 실험 조건에 각각 20~23명씩 무선적으로 배정되었다. 이들 중에서 실험의 목적을 눈치챈 6명을 제외한 209명(남자 104, 여자 10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실험자극

##### 가. 점화과제

본 실험에서는 실험 1과는 달리 점화의 동화효과를 얻기 위해 점화과제로 문장완성과제를 사용하였다. 점화과제는 Snull과 Wyer(1979)가 사용한 것을 참고해서 본 연구자가 새롭게 만든 것이다. 점화과제는 10개의 문장완성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험자들에게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보고서 이 중 3개의 단어를 이용하여 가능한 빨리 의미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내도록 지시하였다(예; 그는 / 행동한다 / 일은 / 대답하게). a) 긍정적인 점화유형에서는 '모험적인'과 관련된 특질 단어인 '용기있는', '대담한', '답력이 큰'을 점화시키고 b) 부정적인 점화유형에서는 '무모한'과 관련된 특질 단어인 '위험한', '분별없는', '생각없는'을 점화시켰다. 특질 단어를 포함한 문장완성 과제는 3, 7, 9번에 제시하고

나머지 7개의 문장완성과제는 특질 형용사를 포함하지 않은 단어들로 구성되었다(filler 문항).

##### 나. 인상형성을 위한 기술문

애매한 기술문은 Higgins, Rholes와 Jones(1977)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날드에 대한 기술문을 '무모한-모험적인'의 한 가지 특질차원만을 나타내도록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Higgins 등(1977)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술문은 '무모한-모험적인'의 차원을 포함하여 4개의 특질을 나타내도록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점화효과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무모한-모험적인'의 한 가지 특질차원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도날드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 맞게 영수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영수에 관한 기술문이 '무모한-모험적인' 특질차원 상에서 애매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9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수에 대한 기술문을 '무모한-모험적인'의 9점 양극척도에서 평가하게 한 결과 평균은 4.59이었고 표준편차는 1.87로 '무모한-모험적인' 차원 상에서 애매한 기술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수에 대한 애매한 기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수는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일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는 산을 타기에 위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인수봉을 등반하였고, 사고가 잦은 위험한 코스인 계곡에서 처음 해보는 급류 타기를 하였다. 또한 조작법이 익숙하지 않은 모터보트를 몰고 바다에 나가기도 한다. 영수는 그 동안 수많은 부상을 당하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앞으로도 그는 새로운 자극을 위해 스카이다이빙을 하거나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려고 생각하고 있다.

##### 실험절차

실험 1의 절차와 유사하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점화과제는 문장구성에 관한 실험으로 위장되어 한 장의 설문지로 실시되었다. 이때 피험자들의 반은 '모험적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특질이 포함된 문장완성과제를 하였고(긍정적 점화조건), 나머지 반은 '무모한'과 관련된 부정적인 특질이 포함된 문장완성과제를 하였고(부정적 점화조건). 모든 피험자들이 문장완성과제를 마치고 나면,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문장이해'에

관한 실험으로 가장된 인상형성 과제를 컴퓨터로 실시하였고 지시문을 통해 정확성 동기 혹은 긍정적인 인상형성의 동기를 갖도록 동기 유발을 조작하였다. 단, 실험 1과는 달리 실험 2에서는 동기를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문을 읽기 전에 유발시키는 조건과 기술문을 읽은 후에 유발시키는 조건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따라서 동기를 부호화 이후에 유발시키는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영수에 대한 기술문을 읽은 후에 동기 유발을 위한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동기를 부호화 이후에 유발시키는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문을 읽고 난 후, 표적인물에 대한 인상을 척도 상에 평가하기 전에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피험자들이 영수에 대한 기술문을 읽기 전(부호화 전)에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지시문들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피험자들이 영수에 관한 기술문을 읽고 난 후에 동기를 유발시키는 조건(부호화 후 동기유발조건)에서는 실험 1에서 제시된 기술문의 내용 중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을 기술문을 읽고 난 후 지시문으로 제시하였다. 단, 통제조건의 경우 동기 유발이 없는 조건이므로 절차는 실험 1의 통제조건과 동일하였다. 피험자들은 기술문을 읽은 후 컴퓨터를 통해 표적인물에 대한 인상을 7점 척도 상에 평가하였다.

### 종속측정

실험 1과 종속변인의 측정치의 내용은 유사하다. 단지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문을 본 후에 피험자들이 표적인물에 대한 인상을 평정하는 특질척도가 실험 1과는 달랐다. 피험자들은 표적인물에 대한 인상을 5개의 7점 양극 척도에 평가하였다. 한 개의 척도는 의미적으로 점화된 특질과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문과 관련된 것이고(모험적인-무모한), 다른 4개는 의미적으로 점화된 특질이나 표적인물의 기술문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었다(비현실-이상적, 자신감있는-자만한, 끈기있는-고집센, 인색한-검소한). 이들 척도의 제시순서는 상쇄균형화 되었다.

### 결과 및 논의

실험 2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점화된 특질과 관련된 1개의 특질차원과 관련없는 4개의 특질 차원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적인물의 기술문과 관련되지 않은 4개의 특질 평정치(비현실-이상적, 자신감있는-자만한, 끈기있는-고집센, 인색한-검소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아무런 유의한 차이를 점화조건이나 동기유형 조건간에 보이지 않았다.

### 가. 조작 검증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실험 2에서도 지시문을 통한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의 조작이 의도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정확성 동기가 제대로 조작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문을 읽는 시간과 기술문에 대한 회상검사에 대해 동기유형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동기유발이 없는 통제조건(평균 21.65, 표준편차6.27)이나 긍정적 인상형성 조건(평균 20.79, 표준편차 7.27)에서보다 정확성 동기조건(평균 23.86, 표준편차 8.3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술문을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F(2, 207)=3.88, p < .05$ . 또한 회상한 기술문의 수도 동기유발이 없는 통제조건(평균 1.63, 표준편차 1.61)이나 긍정적 인상형성 조건(평균 1.80, 표준편차 1.28)에서보다 정확성 동기조건(평균 2.33, 표준편차 1.4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2, 207)=5.13, p < .01$ . 이와 같은 결과는 정확성 동기 지시문이 제시된 경우에 사람들이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더 자세히 읽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실험자가 의도한 대로 정확성 동기가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의도대로 조작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적인물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을 측정하였다. 이를 동기유형별로 비교해 본 결과, 동기유발이 없는 통제조건(평균 4.04, 표준편차 1.34)이나 정확성 동기조건(평균 4.16, 표준편차 1.13)에서보다 긍정적 인상형성 조건(평균 4.65, 표준편차 .96)에서 점화유형과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적인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2, 207)=6.77, p = .001$ .

### 나. 문장완성과제의 점화효과 검증

점화과제로 실시된 문장완성과제에서 보았던 특질이

이후의 인상형성과제에서 표적인물에 대한 판단에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점화과제를 한 후, 동기의 유발 없이 표적인물에 대한 인상형성을 하도록 하였다(통제조건). 점화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무모한-모험적인' 특질차원에서, 피험자들은 긍정적 특질 점화조건(평균 5.18, 표준편차 1.68)과 부정적 특질 점화조건(평균 3.81, 표준편차 1.86)간에 표적인물에 대한 평정에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41)=76.13, p < .001$ . 즉, 문장완성과제에서 '용기있는', '대담한', '담력이 큰'을 점화시킨 경우에는 표적인물을 '모험적인' 쪽으로 평가하였고, '위험한', '분별없는', '생각없는'을 점화시킨 경우에는 '무모한' 쪽으로 평가하여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점화의 동화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점화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있는 차원들의 평정에서는 긍정적 점화조건과 부정적 점화조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점화의 동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앞에서 연구된 점화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Stapel 등, 1998).

**다. 가설검증**

**점화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있는 특질차원에 대한 평정에서, 동기유형과 동기유발 시점에 따른 점화의 동화효과의 발생 여부**

피험자들은 점화된 특질이나 기술문과 의미적으로 관련있는 '무모한-모험적인' 특질차원에서 7점 척도 상에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동기유형과 동기유발 시점에 따라 점화유형별로 피험자들이 표적인물에 대해 한 평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동기의 종류, 동기가 유발된 시점 및 점화유형에 따라 표적인물에 대한 평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동기유형: 정확성 동기,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 × 2(동기유발시점: 부호화 전/후) × 2(점화유형: 긍정/부정)의 세 변인을 모두 피험자간 변인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동기유형 중 동기유발이 없었던 통제조건은 동기유발시점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점화특질과 의미적으로 관련있는 '무모한-모험적인' 특질차원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가를 변량분석한 결과, 동기유형의 주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158)=18.14, p < .001$ . 즉, 긍정적인 인상형성의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정확성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보다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실험의 주목적은 동기가 유발된 시점에 따라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인 인상형성의 동기가 점화의 동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기유발 시점별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동기유형과 점화자극 유형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동기가 부호화 전에 유발되었던 경우에는 동기유형과 점화유형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기가 부호화 전에 유발된 조건에서, 정확성 동기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 모두 긍정적 특질 점화조건과 부정적 특질 점화조건 간에 표적인물에 대한 점수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점화된 특질 맥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기적 목표에 따라 표적인물에 대한 인상형성을 한 것이다. 그러나 동기가 부호화 후에 유발된 조건

표 4. 동기유형과 동기유발시점에 따라 점화유형별로 점화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있는 특질차원에 대한 평정의 평균과 표준편차

점화유형	통제조건	부호화 전 동기유발		부호화 후 동기유발	
		정확성 동기	긍정인상동기	정확성 동기	긍정인상동기
긍정점화	5.18(1.68) <sub>a</sub>	4.10(1.62) <sub>bc</sub>	5.35(1.39) <sub>a</sub>	5.05(1.50) <sub>a</sub>	5.36(1.59) <sub>a</sub>
부정점화	3.81(1.86) <sub>b</sub>	4.35(1.69) <sub>c</sub>	5.48(1.50) <sub>a</sub>	3.95(1.47) <sub>b</sub>	5.24(1.22) <sub>a</sub>

\*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적으로 평가한 것.  
 \* ( )은 표준편차임.  
 \* 다른 첨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

에서는 동기유형과 점화 자극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상호작용효과의 경향성을 보였다,  $F(1, 81)=2.93, p = .089$ . 이러한 결과는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후에 유발되는 경우에는 점화유형에 따라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에 차이를 보이지만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 조건에서는 점화유형과는 상관없이 표적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점화의 동화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그림 2).

보다 확실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 각 동기유형과 동기 유발시점별로 점화의 동화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동기유발 시점에 따라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 조건에서 점화의 동화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동기가 유발된 시점과 동기유형에 따라 긍정적 특질 점화조건과 부정적 특질 점화조건에서의 평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사전대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호화 전에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모두 긍정적 특질 점화 조건과 부정적 특질 점화조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호화 후에 동기가 유발된 경우에는 두 동기들 간에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후에 유발된 경우에는 긍정적 특질 점화조건과 부정적 특질 점화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F(1, 199)=49.08, p < .001$ ,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부호화 후에 유발된 경우에는 긍정적 특질 점화조건과 부정적 특질 점화조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전대비분석 결과는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전, 즉 표적인물에 대한 기술문을 읽기 전에 유발되는 경우에는 점화효과가 사라졌지만, 부호화 후인 기술문을 읽은 후에 정확성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에는 점화의 동화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부호화 후에 정확성 동기가 유발된 경우에는 긍정적 특질이 점화된 경우에는 표적인물을 모험적인 쪽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인 특질이 점화된 경우에는 표적인물을 무모한 쪽으로 평가하는 점화효과가 나타나서, 정확성 동기가 점화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는 유발되는 시점이 부호화 전이었는지, 아니면 후였는지와 상관없이 점화의 동화효과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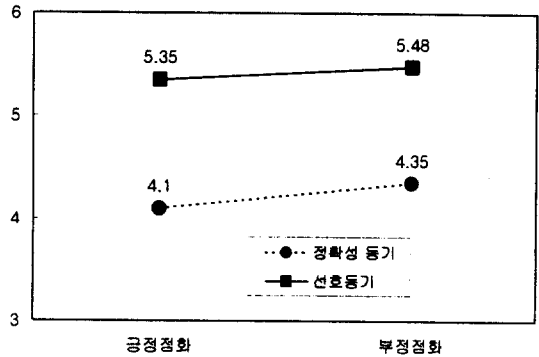


그림 1. 부호화 전에 동기가 유발된 조건에서의 동기유형과 점화유형에 따른 점화 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특질차원('무모-모험')에 대한 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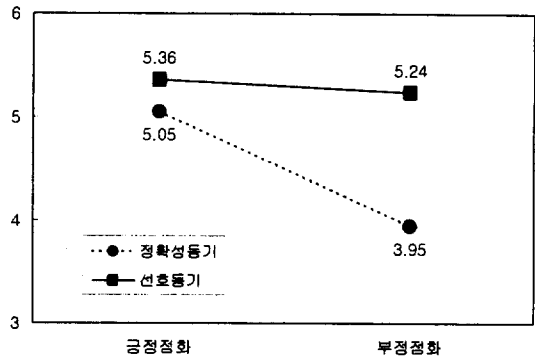


그림 2. 부호화 후에 동기가 유발된 조건에서의 동기유형과 점화유형에 따른 점화 자극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특질차원('무모-모험')에 대한 평정

그런데 각 동기유형과 동기유발시점별로 점화의 동화효과 발생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러한 평정 결과가 동기유발이 없었던 조건과 어떻게 다른 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확성 동기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유발된 조건과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조건간에 표적인물에 대한 평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대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전에 유발되고, 긍정적인 특질이 점화된 경우에는 동기유발이 없이 긍정적인 특질이 점화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적인물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F(1, 199)=18.76, p < .001$ ,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전에 유발되고 부정적인 특질이 점화된 경우에는 동기

유발 없이 부정적인 특질이 점화된 경우보다 유의하게 표적인물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F(1, 199)=9.74, p < .01$ . 또한,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부호화 전에 유발되고, 긍정적인 특질이 점화된 경우에는 동기 유발이 없이 긍정적인 특질이 점화된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부호화 전에 유발되고 부정적인 특질이 점화된 경우에는 동기유발 없이 부정적인 특질이 점화된 조건보다 유의하게 표적인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F(1, 199)=82.95, p < .001$ .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후에 유발된 경우에는 긍정적 특질이 점화된 조건과 부정적 특질이 점화된 조건 모두에서 동기 유발이 없었던 조건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부호화 후에 유발되고, 긍정적 특질이 점화된 경우에는 동기 유발이 없이 긍정적 특질이 점화된 경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부호화 후에 유발되고 부정적 특질이 점화되는 경우에는 동기 유발이 없이 부정적 특질이 점화된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적인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F(1, 199)=82.95, p < .001$ . 즉,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전에 유발되는 조건은 점화 자극과 상관없이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가 동기 유발이 없었던 조건에 비해 덜 극단적으로 나타나 점화의 동화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호화 후에 유발되는 경우에는 동기 유발이 없었던 조건과 마찬가지로 점화의 동화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긍정적인 인상형성의 동기가 유발된 조건은 동기유발 시점과 관계없이 동기 유발이 없었던 조건에 비해 표적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 합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점화의 대비효과와 동화효과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들 동기가 인지적 추론 단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험 1에서는 정확성 동기는 점화의 대비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는 점화의

대비효과를 압도함을 발견하였다. 점화의 대비효과는 점화된 범례를 판단단계에서 비교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로서 정확성 동기가 대비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정확성 동기가 판단단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는 대비효과를 제거함으로써 부호화 단계 뿐만 아니라 판단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결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의 유발시점을 부호화 전과 후로 나누어 이들 동기들이 점화의 동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실험결과,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전에 유발된 경우에는 점화의 동화효과가 제거되었지만, 부호화 이후에는 점화의 동화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는 부호화 전 뿐만 아니라 부호화 후에 유발된 경우에도 점화의 동화효과를 제거하였다. 실험 1과 2의 결과는 정확성 동기는 정보를 부호화하는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부호화 이후에 유발된 경우에는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와 같은 방향적 목표를 갖는 동기들의 영향은 인지적 추론의 과정에서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단계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본 실험의 결과는 Thompson 등(1994)의 실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Thompson 등의 실험에서는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이후에 유발된 경우에도 점화의 동화효과는 감소되었다.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이후에 유발되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원래 점화된 범주로 부호화되었던 정보가 정확성 동기가 유발된 후에 다시 정확성 목표에 맞도록 재부호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확성 동기가 방향적 목표보다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러나 정확성 동기가 부호화 후에 유발되어 점화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전 지식에 의해 부호화된 목표정보를 적극적으로 재부호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재해석이 불가능할 때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Ford & Kruglanski, 1995; Sedikides, 1990; Tetlock, 1992). 그



런데, 이미 표상된 정보를 다시 재부호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인지적으로 분주하거나(Kruglanski, 1989b),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에(전우영, 1998),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짐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이미 점화된 범주로 표상된 정보를 재부호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적인 부담이 없어야 할 것이고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적거나 복잡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전에 활성화된 범주에 의해 부호화된 표상은 초기에는 기억 속에 원정보와 함께 저장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원정보를 잃어버리고 부호화된 표상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정보의 재부호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설명들은 정확성 동기가 재부호화 과정을 통해 판단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더라도, 방향적 목표의 영향보다는 제한적일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직접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동기가 유발된 경우 피험자들은 판단과제에서 점화된 특질과 대비되거나 동화되는 판단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기에 의해 대비나 동화의 효과가 완전히 제거된 것인지 아니면 동기의 효과가 더 커서 점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지 못했다. 단, 동화효과나 대비효과가 제거되거나 압도되었다는 표현이 점화에 의한 판단 오류에서 벗어나 판단과제에 대한 정확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동기효과에 의한 점화효과의 제거나 압도의 표현은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뿐이며, 이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인상형성 동기가 유발된 피험자들은 표적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판단에 점화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부호화단계와 판단단계 중 어느 단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일어난 것인지를 검증해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가 판단 기술문을 받기 전에 유발된 경우에는 정보를 부호화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판단기술문을 받은 후에 유발된 경우에는 판단을 위해 정보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검증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 또한 검증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 중에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과정으로 점화효과를 선택한 것은 많은 중요한 사회적 행동들이 점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쟁과 관련된 단어를 의식할 수 없는 수준에서 보았던 피험자들은 보다 경쟁적으로 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점화가 그들의 경쟁적인 성격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이다(Neuberg, 1988). 또한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충동은 공격적 단서가 존재할 때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까운 탁자 위에 놓여진 총은 사람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데(Berkowitz, 1974) 이러한 상황도 점화로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점화의 효과는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서나 흔히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의식 없이 일어나는 자동처리라는 점에서 점화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점화의 효과는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점화에 관한 연구들은 자극에 대한 초기 점화가 1주일 뒤에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Higgins & King, 1981; Sinclair, Mark, & Shotland, 1987; Srull & Wyer, 1980). 이러한 결과는 일시적으로 점화된 범주가 자극을 영구히 부호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일 자극이 대안적인 여러 범주들 중에 하나로 부호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 단기적인 점화는 어떤 범주가 부호화에 사용될 것인지를 결정해 주게 된다(Fiske & Taylor, 1991). 이러한 점화효과의 영구적인 결과는 고정관념의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화의 효과가 다른 특성의 동기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더 나아가 다른 도식이나 고정관념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특성이 다른 동기들이 인지적 판단의 결과, 즉 판단 내용에 다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판단 과정에서도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지금까지 동기와 인지적 판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지적 판단이 동기의 영향에 의해

판단내용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왔었다. 이에 따라, Kunda(1990)는 동기에 의해 판단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판단과정에서 동기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동기가 기억탐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다. Kunda의 연구는 동기가 판단과정에서 기억검색이나 추론규칙 선택에 영향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판단 내용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였지만, 동기의 특성에 따라 판단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인간은 여러 유형의 동기들을 갖고 있으며 이들 동기들의 특성 또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적 판단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성이 다른 동기들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판단과정에 미치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간의 동기들 중 다른 특성을 가진 정확성 동기와 긍정적 인상형성의 동기가 판단과정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으며, 특히 동기들이 인지적 추론과정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는데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즉, 정확성 동기는 부호화단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주어지기 전에 판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긍정적 인상형성 동기와 같은 방향적 목표는 판단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동기가 유발되는지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지적 판단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이 동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점화효과를 통해 보여 주었다. 그런데, 점화로 인한 범주의 접근용이성은 일시적 접근용이성(temporary accessibility)과 만성적 접근용이성(chronical accessibility)으로 구분될 수 있다(Higgins, Bargh, & Lombardi, 1985). 범주의 일시적 접근용이성은 사회적 판단과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특정 범주를 활성화하여 그 범주의 접근용이성이 순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서 본 실험의 패러다임은 피험자들에게 일시적인 접근용이성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자의 만성적으로 접근용이한 범주가 지각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사건

에 판단과제와 관련이 있을 만한 사건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접근 용이성에 의해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본 실험에서도 점화된 특질의 일시적인 접근용이성 효과뿐 아니라 만성적인 접근용이성의 효과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에서는 학생들의 만성적인 접근용이성이 사전에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평소에 모험적인 일을 선호해서 수상스키나 행글라이더 같은 새로운 일을 즐겼거나 그러한 활동을 동경하던 학생들은 점화된 특질과 상관없이 표적인물을 모험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 반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리석고 무모한 것으로 생각했던 학생들은 표적인물을 무모한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접근용이성과 만성적인 접근용이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점화에서 판단까지의 시간적 지연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시간적 지연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 점화된 특질에 의한 일시적인 접근용이성이 판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지만 시간적 지연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자주 점화되었던 특질에 의한 만성적인 접근용이성의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Higgins et al., 1985). 본 실험에서는 비록 만성적인 접근용이성이 통제되지는 않았으나, 점화과제와 판단과제 간의 시간적 지연이 짧았으므로 일시적인 접근용이성이 표적인물에 대한 판단에 미친 효과가 만성적인 접근용이성의 효과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점화가 일시적인 접근용이성 효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회적 추론에 미치는 동기의 영향에까지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점화효과에서 본 실험의 결과가 다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점화연구에서는 점화효과가 관련없는 기술문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Stapel & Koomen, 2000). 즉, 극단적이고 광범위한 단어(좋은 - 나쁜)가 점화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성의 한계를 넘어 점화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화효과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점화효과보다 강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화효과에도 동기의 영향이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점화의 효과는 이미 점화된 특질로 부호화된 자극에 대한 평정

이 지연될 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점화된 특질에 의해 일단 부호화된 자극은 특정 점화와 연결된 채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으면 있을수록 점화의 효과는 더 커진다(Srull & Wyer, 1980).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잊어버리고 점화된 표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를 지연시키는 것은 주어진 정보에 대한 기억을 근거로 평가하기보다 이미 기억 속에 점화된 특질로 부호화된 정보에 대한 기억을 사용하게 한다. 이러한 지연된 평가의 경우에도 동기들에 의해 점화의 효과가 제거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인 접근용 이성 뿐만 아니라 자주 활성화되는 특질에 의한 만성적인 접근 용이성과 지각수준 이하로(subliminal) 제시된 점화자극의 효과도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점화에 대한 동기의 영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동기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며 점화효과에 미치는 동기적 영향에 관한 결과를 다른 사회적 추론 과정에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변지은 · 이훈구 (1994). 자기제시 및 정확성 추구의 목적이 휴리스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17-130.
- 전우영 (1998). 정보량과 동기적 요인이 집단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rgh, J. A., & Thein, R. D. (1985). Individual construct accessibility, person memory, and the recall-judgment link: The case of information overlo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129-1146.
- Bartlett, F. C. (1932). *Remembering*.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kowitz, L.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 Berscheid, E., Graziano, W., Monson, T., & Dermer, M. (1976). Outcome dependency: Attention, attribution, an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78-989.
- Bruner, J. S. (1957). On perceptual readiness. *Psychological Review*, 64, 123-152.
- Chaiken, S. (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52-766.
- Chaiken, S., Liberman, A., & Eagly, A. H. (1989). Heuristic and systematic processing within and beyond the persuasion context.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pp.212-252). New York: Guilford Press.
- Darley, J. M., & Berscheid, E. (1967) Increased liking as a result of anticipation of personal contact. *Human Relations*, 20, 29-40.
- Fiske, S. T. (1980). Attention and weight in person perception: The impact of negative and extrem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889-906.
- Ford, T. E., & Kruglanski, A. W. (1995). Effects of epistemic motivations on the use of accessible constructs in social judg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950-962.
- Frey, D., & Stahlberg, D. (1986). Selection of information after receiving more or less reliable self-threatening in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332-348.
- Harkness, A. R., Debono, K. G., & Borgida, E. (1985). Personal involvement and strategies for making contingency judgments: A stake in the dating game makes a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22-32.
- Herr, P. M. (1986). Consequences of priming: judgment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06-1115.
- Herr, P. M., Sherman, S. J., & Fazio, R. H. (1983). On

- the consequences of priming: assimilation and contrast effe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323-340.
- Higgins, E. T. (1989). Knowledge accessibility and activation; Subjectivity and suffering from unconscious sources. In J. S. Uleman & J. A. Bargh(Eds.), *Unintended thought* (pp.75-152). New York: Guilford Press.
- Higgins, E. T. (1996). Knowledge activation: accessibility, applicability, and salience.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 Guilford press. New York.
- Higgins, E. T., Bargh, J. A., & Lombardi, W. (1985). The nature of priming effects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59-69.
- Higgins, E. T., & King, G. A. (1981). accessibility of social constructs: Information processing consequences of individual and contextual variability. In N. Cantor & J. Kihlstrom (Eds.), *Personality, cognition, and social interaction* (pp. 69-121). Hillsdale, NJ: Erlbaum.
- Higgins, E. T., Rholes, W. S., & Jones, C. R.(1977). Category accessibility and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141-154.
- Kruglanski, A. W. (1989a). *Lay epistemics and human knowledge: Cognitive and motivational bases*. New York: Plenum.
- Kruglanski, A. W. (1989b). The psychology of being "right": The problem of accuracy in social perception and cognition. *Psychology Bulletin*, 106, 395-409.
- Kruglanski, A. W. & Ajzen, I. (1983). Bias and error in human judgmen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1-44.
- Kruglanski, A. W., & Freund, T. (1983) The freezing and unfreezing of lay inferences: Effects on impression primacy, ethnic stereotyping, and numerical anch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448-468.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Kunda, Z., & Nisbett, R. E. (1986). Prediction and the partial understanding of the law of large numb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339-354.
- Lombardi, W. J., Higgins, E. T., & Bargh, J. A. (1987). The role of consciousness in priming effects on categor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3, 411-429.
- Marcel, A. J. (1983). Conscious and unconscious perception: Experiments in visual masking and word recognition. *Cognitive Psychology*, 15, 197-237.
- Martin, L. L. (1986). Set/reset: Use and disuse of concepts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93-504.
- Meyer, D. E., & Schvaneveldt, R. W. (1971). Facilitation in recognizing pairs of words: Evidence of a dependence between retrieval oper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90, 227-234.
- Neely, J.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s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5-254.
- Neisser (1967). *Cognitive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Neuberg, S. L. (1988). Behavioral implications of information presented outside of conscious awareness: The effect of subliminal presentation of trait information on behavior in the Prisoner's Dilemma Game. *Social Cognition*, 6, 207-230.
- Neuberg, S. L. (1989). The goal of forming accurate impressions during social interactions: Attenuating the impact of negative expecta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374-386.

- Neuberg, S. L., & Fiske, S. T. (1987). Motivational influences on impression formation: Outcome Dependency, accuracy-driven attention, and individuating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31-444.
- Pyszczynski, T. A., & Greenberg, J. (1987). Toward and integration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erspectives on social inference: A biased hypothesis-testing model. In L. Berkowitz (Ed.), *Advanced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pp. 297-340). Orlando, FL: Academic Press.
- Ruscher, J. B., & Fiske, S. T. (1990). Interpersonal competition can cause individuating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32-842.
- Sedikides, C. (1990). Effects of fortuitously activated constructs versus activated communication goals on person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97-408.
- Sherman, B. R., & Kunda, Z. (1989). Motivated evaluation of scientific evidence.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convention, Arlington.
- Sinclair, R. C., Mark, M. M., & Shotland, R. L. (1987). Construct accessibility and generalizability across response categor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3, 239-252.
- Srull, T. K., & Wyer, R. S., Jr. (1979). The role of category accessi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Some determinants and impl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660-1672.
- Srull, T. K., & Wyer, R. S., Jr. (1980). Category accessibility and social perception: Some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person memory and interpersonal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841-856.
- Stapel, D. A., & Koomen, W. (2000). How far do we go beyond the information given? the impact knowledge activation on interpretation and in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9-37.
- Stapel, D. A., Koomen, W., & van der Pligt, J. (1996). The referents of trait inferences: The impact of trait concept versus actor-trait links on subsequent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37-450.
- Stapel, D. A., Koomen, W., & van der Pligt, J. (1997). Categories of category accessibility: The impact of trait concept versus exemplar priming on person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44-76.
- Stapel, D. A., Koomen, W., & Zeelenberg, M. (1998). The impact of accuracy motivation on interpretation, comparison, and correction processes: accuracy  $\times$  knowledge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878-893.
- Strack, F., Schwarz, N., Bless, H., Kubler, A., & Wanke, M. (1993). Awareness of the influence as a determinant of assimilation versus contras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53-62.
- Tetlock, P. E. (1983). Accountability and complexity of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74-83.
- Tetlock, P. E. (1992). The impact of accountability on judgment and choice: Toward a social contingency model.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331-37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Tetlock, P. E., & Boettger, R. (1989). Accountability: A social magnifier of the dilution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88-398.
- Tetlock, P. E., & Kim, J. I. (1987). Accountability and judgment processes in a personality prediction ta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121.

- chology*, 52, 700-709.
- Thompson, E. P., Roman, R. J., Moskowitz, G. B., Chaiken, S., & Bargh, J. A. (1994). Accuracy motivation attenuates covert priming: The systematic re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474-489
- Vonk, R. (1998). Effects of cooperative and competition outcome dependency on attention and impression pre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265-288.
- Wegener, D. T., & Petty, R. E. (1995). Flexible correction processes in social judgment: The role of native theories in corrections for perceived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36-51.
- Wegener, D. T., & Petty, R. E. (1997). The flexible correction model: The role of native theories of bias in bias corrections.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9, pp. 141-208). Mahwah, NJ: Erlbaum.
- Wilson, T. D., & Brekke, N. (1994). Mental contamination and mental correction: Unwanted influences on judgments and evalu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117-142.
- Wyer, R. S., & Srull, T. K. (1989). *Memory and social cognition in its social context*. Hillsdale, NJ: Erlbaum.

## **Impacts of Motivation for Accuracy and Motivation for Positive Impression on Priming Effects**

**Jee-Eun Byun and Hoon-Ko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compares motivation for accuracy with motivation for positive impression which is one of directional goals, focusing on their impacts on contrast and assimilation effects of priming, to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they affect the process of social judgment. Experiment 1 assesses the impacts of two motivations on contrast effect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indicate that motivation for accuracy does not eliminate contrast effects, whereas motivation for positive impression does. Contrast effect implies that primed exemplars are used as comparison standard at judgment stage, not at encoding stage. Therefore, this experiment shows that motivation for accuracy does not affect judgment stage while motivation for positive impression does. Experiment 2 compares the impacts of two motivations on assimilative priming effects where they are activated before and after encoding, respectively. Priming effect was eliminated when motivation for accuracy was introduced before encoding, but was not eliminated when it was introduced after encoding. However, motivation for positive impression overwhelmed priming effects both before and after encoding. This result implies that motivation for accuracy affects only encoding stage, while motivation for positive impression affects both encoding and judgment stages. Therefore, we can conclude from these results that motivation for accuracy and motivation for positive impression make different impacts on social inference process.

**Keywords :** motivation for accuracy, directional goals, motivation for positive impression, priming effects, assimilation effect, contrast effect

원고 접수: 2001년 1월 9일  
심사 통과: 2001년 2월 7일